

# 방송국, '시청률 치트키=트로트 코인'에 탑승하라



트로트가 방송환경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TV조선(TV CHOSUN) '미스터트롯'과 MBC '놀면 뭐하니?'로 시작한 트로트 열풍이 날이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미스터트롯'의 시즌2 격인 '미스터트롯2'가 종합편성채널 사상 최고 시청률 35.711%(이하 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기준)을 달성하며, 멸종된 것으로 보인 마의 30%대 시청률을 이루자 다시 한번 더 '트로트 광풍'이 불고 있다.

트로트를 소재로 하고, 트로트 가수가 나오면 일단 '대박'의 결과가 속속 지표로 드러나면서, 방송가에는 '트로트 코인' '트로트 버스'에 탑승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장년층 세대만 소비하던 문화가 주류로 옮겨왔다는 반응과 함께, 이대로라면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트로트 코인'의 '떡상'(폭등) 효과를

## '미스터트롯', 종편 사상 최고 시청률 35.711% 달성 "중장년층 문화 주류로 옮겨와 vs 방송 소재 좁아져"

본 프로그램이 많다. '미스터트롯'의 출연진이 총출동한 JTBC '몽쳐야 찬다' 지난 12일 방송분은 10.516%를 달성했다. 지난해 6월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후 자체 최고 시청률이자, 첫 두 자릿수 시청률이다. 더불어 그동안 꾸준한 하락세로 지난해 4.67%까지 떨어졌던 시청률을 단번에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고정적인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1부 11.3%, 2부 12.4%)와 SBS '미운 우리새끼' (1부 11.0%, 2부 13.4%, 3부 11.8%)를 위협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미스터트롯'의 전선미 임영웅, 영탁, 이찬원과 장민호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분은 1부 9.3% 2부 10.6%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회차(4.3%)의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더불어 지난 2016년 10월 16일 방송된 김수지, 김완선, 박수홍, 김수용 출연편이 기록한 10.4% 이후 3년 반 만에 나온 두 자릿수 시청률로, 말그

대로 '초대박'이다. 프로그램 장르를 불문하고 시청률은 상승했다. '미스터트롯' 전선미가 출연하는 TV조선 '뉴스9' 16일 방송분은 8.619%를 기록했는데, 지난 2012년부터 방송된 '뉴스9'의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또 '미스터트롯'의 송가인과 흥자가 함께 출연한 '아는 형님' 지난 11일 방송분은 8.37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회차가 기록한 5.982%에서 대폭 상승한 수치이자, 프로그램 역대 시청률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결정적으로 트로트 소재의 시청률 파이가 드러난 프로그램은 MBC '편애중계'다. '편애중계'다. 지난해 11월 처음 방송된 '편애중계'는 매회 다른 소재와 출연자가 나오는데, 트로트를 소재로 택했을 때 시청률이 세 배 이상 뛰었다. 평소 2~3%대 시청률을 기록하던 '편애중계'는 지난 3월 6일 '트로트 신동' 특집을 할 때 7.7%까지 뛰었다. 이후 다른 주제가 나오자 2%대로 다시 하락했고, '10대

트로트 가수왕 대전' 특집이 시작하고 다시 6.8%로 뛰었다. 인기 트로트 가수가 나오는 것이 아닌 일반인 출연자가 나오에도 트로트라는 소재만으로 시청률이 상승했다는 의미다. 이에 방송사들은 시청률 치트키 트로트에 꽂혔다. 트로트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다수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트로트 가수들은 방송가 섭외의 1순위가 됐다. '트로트 광풍'은 현재로서는 '순항' 중이다. 시청률 가뭄에 시달리던 프로그램들은 오랜만에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확보했고, '트로트 대세'에 몸을 맡긴 출연자들도 더욱 다양한 곳에서 활약할 수 있어서 '윈윈'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 때 복제 프로그램이 양산되고 TV의 새로운 시도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청률 기간 상태에서 방송국이 참신한 기획보다 안전한 트로트 소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예능 프로듀서는 "지금은 '트로트 코인에 탑승하자'면서 자조적인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며 "시청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도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배우 정은채 측, 정준일과 불륜설에 "10년 전 끝난 지극히 개인적인 일"

"추측성 댓글과 근거 없는 주장 삼가 간곡히 부탁"



배우 정은채 측이 정준일과의 불륜설에 대해 "10년 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모두 끝난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은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안은 10여 년 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모두 끝난 부분"이라며 "특히 양측 모두가 현재 이 사안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보도가 되면서, 마치 현재의 사건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키이스트 측은 "앞서 정은채씨 관련한 입장을 본의 아니게 밝힌 바 있다"며 "이

로 인해 양측의 또 다른 진실 공방이 계속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키이스트 측은 "더 이상의 추측성 댓글과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가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 매체는 정은채와 정준일이 약 10년 전 불륜 관계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은채 측의 말을 인용, 당시 정은채는 정준일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준일의 소속사 엔와이뮤직 관계자는 지난 17일 "정준일이 전 아내와 결혼하고 이혼한 게 약 10년 전 일"이라며 "정은채에 대해 제기된 내용은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준일 측은 이튿날인 18일에는 "정준일과 정은채의 교제 여부는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정은채가 정준일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고, 함께 영화 촬영을 할 때부터 기혼자라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영화 '초능력자'로 데뷔한 정은채는 지난 17일 처음 방송된 SBS 새금토드라마 '더 킹-영원한 군주'에 출연 중이다. 정준일은 2008년 메트로 데뷔, 2011년부터 솔로로도 활동 중이며, '안아줘' 등 히트곡을 냈다.

뉴스1

## 정우성부터 연상호...韓 영화인들의 넷플릭스 도전장

한국 진출 4년차...영화인들 새로운 기회 찾기 위한 시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배우 정우성, 연상호 감독, 이경미 감독, 황동혁 감독, 이재규 감독

글로벌 OTT 서비스 회사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지도 4년이 넘었다. 190여개국 1억6700만개 멤버십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는 전세계 콘텐츠 유통 시장을 바꿔놓았다. 넷플릭스가 극장 개봉이나 TV 방영 없이도 원하는 국가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준 덕분에 제2차, 3차의 한류열풍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도 생겼다. 넷플릭스는 진출 국가의 작가나 연출가를 적극적으로 기용해 지역마다 색깔에 맞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해왔다. 국내에서도 좀비 드라마 '킹덤'이 시즌2까지 제작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봉준호 감독이 2017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옥자'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최근 돋보이는 현상을 꼽자면 한국 영화인들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 참여다. 총무로서 실력을 인정 받은 감독과 배우, 스테프가 넷플릭스의 지원 아래에서 영화가 아닌 드라마 형식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는 네이비웹툰 인기 연재작 '지금 우리 학교는'을 바탕으로 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좀비 바이어스가 피인 한 고등학교에 고립된 이들과 그들을

구하려는 자들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원작 웹툰은 실감 나는 작화와 연출로 '한국형 좀비 그래픽 노블'이라 칭송받으며 현재까지도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리즈는 영화 '완벽한 타인'의 이재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기로 했다. 이재규 감독은 드라마 '다모' '패션70s' '베토벤 바이어스' '더킹 투하츠' 등 인기 드라마의 연출PD 출신이다. 2010년 영화 '인플루언스'로 스크린에도 진출해 역린 '완벽한 타인' 등을 선보였다. 김 효희의 드라마 연출에 경험이 풍부한 만큼 완성도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한국형 좀비 영화 '부산행'을 전세계적으로 성공시킨 연상호 감독도 넷플릭스에서는 영화가 아닌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다. 유아인, 박정민, 원진아 등이 주연으로 캐스팅 물망에 오른 '지옥'이다. '지옥'은 연상호 감독이 글을 쓰고 '송곳' 최규석 작가가 그림을 그린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어느날 갑자기 인간들이 직면한 기적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현재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의 속편인

'반도'의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다. '지옥'은 전 세계 관객이 연 감독의 '특기'로 여기고 있는 '좀비물'은 아니지만 독특한 내용과 좀비물 못지 않은 파격적인 내용으로 기대를 안고 있다. 배우 정우성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제작자로 함께 한다. 정우성이 제작할 작품은 무려 '우주 SF 스틸러인' '고요의 바다'다. '고요의 바다'는 전 세계적인 사막화로 인해 물과 식량이 부족해진 미래의 지구에 배경으로, 달에 버려진 연구기에 의문의 샘플을 회수하려 가는 정예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작품은 20014년 제13회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던 동명의 단편 영화를 드라마 형태로 시리즈화한다. 연출은 원작의 연출자였던 최항용 감독이 맡고, 각본은 영화 '마더'로 제29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각본상을 수상한 박은교 작가가 담당한다. 또 주연으로는 배우 배우나가 물망에 올랐다. 한국 영화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작자와 주연 배우, 작가가 신에 감독과 손을 잡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여주는 셈이다. 한국 영화인들의 넷플릭스 시리즈 도전은 못뚫처럼 이어지고 있다. '도가니'부터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까지 세 편의 영화를 모두 성공시킨 황동혁 감독도 이젠 주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드라마 연출에 도전한다. 또한 영화 '미쓰 홍당무' '비밀은 없다' 이경미 감독도 정우미 주연의 '보건교사 안은영'의 연출을 맡았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김성호 감독도 오리지널 시리즈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점사입니다'를 연출한다. 영화인들의 넷플릭스 드라마 진출은 의도적이 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시도도 읽힌다. 앞서 다수 감독이 넷플릭스와의 작업의 장점으로 '창작권의 존중'을 꼽은 바 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아이리시맨'을 선보인 마틴 스코프세지 감독은 "오직 넷플릭스만이 우리가 '아이리시맨'을 원하는 방식대로 찍을 수 있게 해줬다"고 밝혔다. 봉준호 감독 역시 '옥자'를 넷플릭스와 만들었던 이유로 "전폭적인 지지"를 언급했다. 연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한 영화 관계자는 뉴스1에 "넷플릭스는 창작자의 자유를 많이 보장해주고, 기존 드라마나 영화와 비교해 성과에 대한 압박도 심하지 않다"며 "영화에서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드라마 형식에 담아내 전세계 관객들에게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는 영화인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 구혜선, '11kg 감량' 티 나는 셀카 공개

배우 구혜선이 셀카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구혜선은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에 "반가웠어요"라며 셀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그녀는 한층 더 청순해진 미모를 뽐냈다. 이날 구혜선은 자신의 전시회 개최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편 안재현과 이혼 소송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날이어서 많은 이목이 쏠렸다. 특히 구혜선은 공개기 동안 11kg를 감량했다고 밝혔다. 또 연예계 복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연예계 복귀라고 한다면 어떤 정리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이어 "당분간 활동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된다면 복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뉴스1

